



11면

임실군 "긴급재난지원금 직접 가져다 드립니다"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윤 4월 4일) 제254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송하진 도지사, 공약이행도 '최우수'

전국 시도지사 공약사업 이행·정보공개 평가 목표달성도 34.6%...국비 확보 등 속도전 호평

전북도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가 실시한 2020 민선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사업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목표달성분야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했다.

25일 매니페스토는 '2020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19.12월말 기준'을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는 지난 3월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 공약이행 자료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분야, 목표달성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 일치도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전북도지사 공약사업 목표달성도는 총 101개 공약 중에 완료 2개, 이행 후 계속추진 33개로 34.6%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류되거나 폐기되거나 변경된 공약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도정목표를 중심으로 그간 일궈낸 주요성과로는 전북 공약형 직불제 전국 최초 도입(2019.9월), 친환경차 동차규제 특구지정 및 에너지 산업용 복합 단지지정(2019.11월),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등재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2019.7월), 새만금 신항만 확대 및 재정사업 전환 확정(19.7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캠퍼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2019.12월) 등이 있다.

공약사업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연금법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전문인력 육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라북도 공약형 직불제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약적 가치 지원조례 및 새만금 세계 캠퍼리 성공 개최를 위한 223년 새만금 세계캠퍼리 지원 특별법시행령을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5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문 전염병 연구시설인 국립 전염병연구소 분원으로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로 전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제정했다. 올해는 전라북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정책 개발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행복정책개발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로 탄소산업 중심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재정구성에서도 총사업비 9조 9,404억원 중 국비 5조 5,177억원(56.05%)으로 광역도 평균 보다 8.8% 낮고, 도비 6.98% 높아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목표달성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공약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와 법률개정, 예산통과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노력의 결과가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공약이행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과의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원칙을 세웠는데 그 원칙이 현장에서 잘 맞으면 이것을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꼼꼼하고 세밀한 원칙을 주변 원칙과 현장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장은 도교육정보보다 학교가 훨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줘야 구체적인 타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원칙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체육활동시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실외에서 이뤄지는 체육활동 시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폐나 심장 등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치명성이 될 수 있다"면서 "용통성 있는 마스크 착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월 3일에는 고, 중, 초등 3~4학년이 6월 8일에는 중, 초등 5~6학년 학생들이 각각 등교 개학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학교 방역의 핵심은 학생 분산으로 학교 안의 등교학생 수를 조절하는 것이다"면서 "특히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지역은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수의 3분의 2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원격수업기간 동안 제공했던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과 학교꾸러미는 등교개학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유치원에 대해서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오는 6월까지 연장 제공한다. 특히 초등 돌봄 지원은 계속 제공된다.

김 교육감은 25일 확대자회의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판단한 결과에 대해 일일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등교수업에 따른 문제는 도교육청이 책임지는 것이라는 것을 교사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교사들도 이 부분은 신뢰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육감은 "방역대책은 꼼꼼하게 원칙대로 잘 지켜줘야 한다"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등교수업을 격주로 할 것인지, 매일 할 것인지, 수업은 몇 분 단위로 운영할 것인지, 점심시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은 학교 여건에 맞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방역대책은 꼼꼼하게 원칙대로 잘 지켜줘야 한다"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등교수업을 격주로 할 것인지, 매일 할 것인지, 수업은 몇 분 단위로 운영할 것인지, 점심시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은 학교 여건에 맞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이미 며칠 전에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의사를 전달했으며 실무진 차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됐다"고 말하고 "보건복지부 역시 시급성 차원에서 전북대 연구소의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 역시 코로나19의 완전 극복과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이다. 문제가 되는 교육부 자신인 전북대 시설 전환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 측은 물론 교육부 등과는 정도 논의가 된 것으로 파악돼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송 지사는 "이미 며칠 전에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의사를 전달했으며 실무진 차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됐다"고 말하고 "보건복지부 역시 시급성 차원에서 전북대 연구소의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국립 시설 전환을"

송하진 도지사 필요성 제기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 전염병 연구시설인 국립 전염병연구소 분원으로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전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5일 "이번 코로나19 K방역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국가적 차원의 관련 연구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행히 기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시설이 연관이 큰 만큼 이를 통한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도청 기자회견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송 지사는 "전북대 시설 운용에 대해 도지사로서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지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이는 국가적 전북도 차원의 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대전환기에 감염병 연구와 치료제 개발 등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송 지사는 "최근 국가비상경제회의에서도 관련 연구소 설립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된 상황에서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면 전북도 입장에서 예산과 인력, 장비 등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감염병 선진국으로 도약해 국가의 격을 높이고 나아가 노벨상 수상까지 배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 역시 코로나19의 완전 국

유치원·초1~2·중3·고2 내일 등교개학

"모든 문제 교육청이 책임"

김 교육감 "방역 원칙대로"

30에 이어 오는 27일 유치원 및 초1~2, 중3, 고2 학생들이 등교개학한다. 25일 전북교육청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등교개학하는 유치원은 319개원 20,027명, 초등학교 1~2학년은 252개교 30,597명, 중학교 3학년은 210개교 15,736명, 고등학교 2학년은 133개교 17676명, 특수학교는 10개교 834명 등 총 955개교(원) 8만6,133명이라고 밝혔다. 단 학생 수 통계는 지난 20일 등교개학한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통계와 일부 중복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원칙을 세웠는데 그 원칙이 현장에서 잘 맞으면 이것을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꼼꼼하고 세밀한 원칙을 주변 원칙과 현장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장은 도교육정보보다 학교가 훨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줘야 구체적인 타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원칙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체육활동시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실외에서 이뤄지는 체육활동 시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폐나 심장 등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치명성이 될 수 있다"면서 "용통성 있는 마스크 착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월 3일에는 고, 중, 초등 3~4학년이 6월 8일에는 중, 초등 5~6학년 학생들이 각각 등교 개학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학교 방역의 핵심은 학생 분산으로 학교 안의 등교학생 수를 조절하는 것이다"면서 "특히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지역은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수의 3분의 2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원격수업기간 동안 제공했던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과 학교꾸러미는 등교개학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유치원에 대해서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오는 6월까지 연장 제공한다. 특히 초등 돌봄 지원은 계속 제공된다.

김 교육감은 "방역대책은 꼼꼼하게 원칙대로 잘 지켜줘야 한다"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등교수업을 격주로 할 것인지, 매일 할 것인지, 수업은 몇 분 단위로 운영할 것인지, 점심시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은 학교 여건에 맞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이미 며칠 전에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의사를 전달했으며 실무진 차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됐다"고 말하고 "보건복지부 역시 시급성 차원에서 전북대 연구소의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 역시 코로나19의 완전 극복과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이다. 문제가 되는 교육부 자신인 전북대 시설 전환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 측은 물론 교육부 등과는 정도 논의가 된 것으로 파악돼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송 지사는 "이미 며칠 전에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의사를 전달했으며 실무진 차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됐다"고 말하고 "보건복지부 역시 시급성 차원에서 전북대 연구소의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당신과 함께하는 따뜻한 봄

비록 지금, 봄을 만끽할 수 없지만 지쳐있는 당신의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는 따뜻한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1588 - 4477 www.jbbank.co.kr

전북은행